

주일의말씀

## 사랑이신 하느님



이종현 요셉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오늘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경축하는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하느님이 위격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시지만, 본체로는 한분 하느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계시 진리로서, 하느님 당신 자신께 직접 관계되는 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 또 매일 성호경을 그을 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분이라는 사실은, 당신 자신이 완전한 사랑 자체이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원래 참 사랑은 서로 간의 완전한 일치와 친교를 뜻합니다.

가톨릭 신자이든 아니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오랜 옛날부터 흔히 다음과 같은 말, “하늘 두려운 줄을 알아라.”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왔습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또 마침내는 그 삶의 결과대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절대자에 대한 관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관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요한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이심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참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많은 경우 산술적이고 이론적인 계산, 이성적인 논리로만 따져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강조하듯이,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사랑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또 구원하시려고 외아들마저도 아낌없이 넘겨주신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하느님의 이 참 사랑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잣대로만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당부는, 바로 우리들 신앙 공동체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참된 친교와 사랑을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신앙인은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아, 친교와 사랑의 공동체를 엮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011 <나눔> 부제 선포식

일시 \_ 부제서품 2011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_ 성 김대건 기념관  
일시 \_ 사제서품 2011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_ 성 김대건 기념관



##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 27)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강산에 널리 펼쳐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는 분단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고 상호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쟁 불사를 외치며 적개심을 키워 나가는 심각한 상황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현 상황을 ‘심각한 위험 수준’으로 보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같은 민족인 우리는 서로 비방하고 적대감만을 키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남과 북의 평화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남과 북에 필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려는 소극적인 평화정책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입니다. 지키는 평화가 아

닌 만들어가는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교류하여야 합니다. 잦은 만남을 통하여 쌓인 오해와 편견을 넘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통해 남과 북은 상생할 수 있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열쇠는 하느님을 믿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치는 간절한 기도와 용서와 화해의 정신 그리고 사랑의 나눔입니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실천적 신앙의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주보이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도움에 힘입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뿌리내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성자·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치와 사랑과 평화가 형제자매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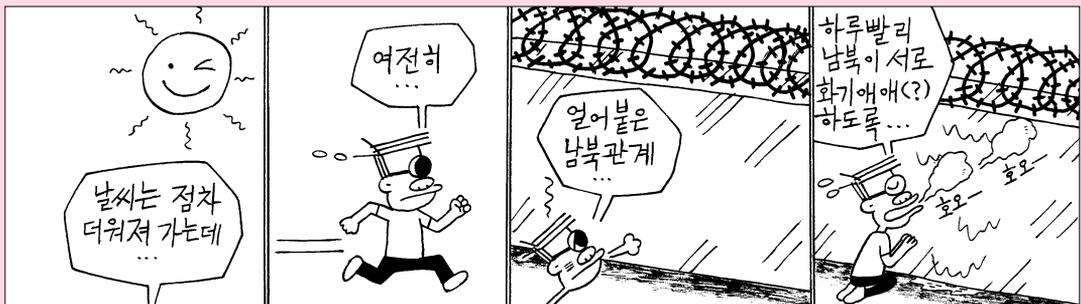
2011년 6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운회(루카) 주교

###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삼위일체 대축일

입당성가

39 하나되게 하소서

화답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3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송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파견성가

83 주 찬미하라

영성의 향기

:: 획일성이 아니라 일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일치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일치는 친교의 표현입니다. 일치의 가장 큰 모범은 삼위일체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신 한 분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하느님께서도 자녀들이 함께 잘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일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치를 보존하고 친교를 나누고 조화를 증진하도록 예수님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인 우리는 한 주님, 한 몸, 한 목적, 한 희망, 한 믿음, 한 사랑을 나누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구원, 생명, 그리고 미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획일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개성이나 취미, 스타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분열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조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라고 권고했습니다.

- 교구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왜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까?



섬유공장 작업장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 “실이 엉키면 작업반장을 부르세요.” 새로 취직한 한 공원이 작업을 하다가 실이 엉켜 버렸습니다. 엉킨 실을 풀어내는 일이 쉬워보였고 또 실수를 했다는 것을 듣기가 싫어서, 그 공원은 자기가 실을 풀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엉킨 실 푸는 일은 보기보다 어려워서, 그 공원은 마침내 작업반장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 공원은 “최선을 다 했지만 결국 할 수가 없었어요.”하고 말했습니다. 작업반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나를 불렀어야지요.”

- 율겨은 글입니다 -

6월 22일 수요일

· 일시 : 2011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성 김대건 기념관



박 남 일 (바오로)  
첫미사 큰고개성당  
6월 22일(수) 19:30



이 진 희 (요한)  
첫미사 청도성당  
6월 26일(주일) 11:00



장 명 훈 (론지노)  
첫미사 두류성당  
6월 22일(수) 19:30



이 대 로 (레오)  
첫미사 이곡성당  
6월 24일(금) 19:30



박 동 찬 (미카엘)  
첫미사 내당성당  
6월 22일(수) 18:00



김 경 덕 (베다)  
첫미사 고산성당  
6월 23일(목) 19:30



사공 병도 (베드로)  
첫미사 남산성당  
6월 23일(목) 19:30



김 현 구 (미카엘)  
첫미사 경산성당  
6월 22일(수) 19:00



성 영 산 (보니파시오)  
첫미사 상인성당  
6월 22일(수) 20:00



오 창 영 (바오로)  
첫미사 계산성당  
6월 23일(목) 19:30



박 재 희 (세례자요한)  
첫미사 평화성당  
6월 24일(금) 19:30



고 태 권 (그레고리오)  
첫미사 복현성당  
6월 24일(금) 19:30



황 은 모 (요한)  
첫미사 범물성당  
6월 22일(수) 19:00



김 병 흥 (세영알렉시오)  
첫미사 대신성당  
6월 23일(목) 19:30



박 상 혁 (프란치스코)  
첫미사 형곡성당  
6월 26일(주일) 10:30

6월 21일 화요일

· 2011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성 김대건 기념관

김성표 (루 카) 북 자 성 당  
마성우 (세례자요한) 도 원 성 당  
이연춘 (마르첼리노) 인 동 성 당  
이철희 (사도 요한) 내 당 성 당  
이정엽 (암브로시오) 육 수 성 당

장경식 (요 셉) 육 수 성 당  
조형래 (마 리 노) 계 산 성 당  
조한웅 (아킬레오) 형 곡 성 당  
김요한 (세례자요한) 만촌3동성당  
김형수 (로 마 노) 남 산 성 당

최용석 (스 테 파 노) 수 성 성 당  
장천주 (다 니 엘) 성김대건성당  
송양업 (토 마 스) 평 화 성 당

이원의료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인마기  
뜸 · 부항기 · 찜질기 · 체온계  
글루코사민 · 오메가3 · 칼슘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이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 2513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28년 전통성가정의 만남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실(마리아)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 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 ↔ 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이연재 맥 의원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원장 : 이연재 (메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 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 방향 200m

대중 · 학문(지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학문외과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진료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차질치료), www.hangmuns.com  
신천대우아파트 복원오거리  
친산교 삼부체육관 본원 대우은행  
시장은 200m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 윤 제 (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이파트당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UNION SAVINGS BANK  
유니온 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관희(안토니오)